



레스토랑·매점

우미 지옥

카페테리아 우미

우미 지옥의 출구 부근에 위치하며, 지옥에 입장하지 않고 카페만 이용하는 것도 가능. 추천은 오이타가 대표 향토 요리 '단고지루'와 우미 지옥의 뜨거운 물로 쪄낸 '지옥찜구이 푸딩'.



숍 렌

규슈 지역 전체의 토산품·오이타현 일촌 일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미 지옥의 온천을 분말로 만든 입욕제 '엔만노유'가 남녀 노소에 대인기. 택배 발송도 가능합니다.



지노이케 지옥

레스토랑 고쿠라쿠테이

지노이케 지옥에 인접한 레스토랑. 오이타 명물 단고지루와 도리텐 (닭튀김), 벳푸 명물인 지옥찜, 또 고쿠라쿠테이 오리지널의 '지옥의 극락 카레'와 '지노이케 버거'도 추천.



매점

오이타·벳푸의 명산품과 오리지널 선물을 약100평의 점 내에 갖추고 있는 매점. 지노이케 지옥에서 솟아나는 지수로 만들어진 피부병에 잘 듣는 '지노이케 연고'가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다쓰마키 지옥

매점

다쓰마키 농원의 계절 한정인 귤, 자몽을 비롯하여 벳푸·구니사키 지방의 진귀한 상품을 다채롭고 풍부하게 갖추고!



주스 & 젤라토 숍

매점 안 쪽의 젤라토 숍에서는 다쓰마키 농원의 과수원에서 수확한, 계절 한정 귤을 생주스로 해서 제공 중!! 프레시 귤 100%의 맛을 느껴보십시오!! 또한 오이타현산의 우유와 프레시 소재를 충분히 사용하여 입 안에서 살살 녹는 풍요로운 젤라토도 꼭 맛보아 주십시오.



“지옥 돌아보기”의 시작과 발전

'지옥'이 관광 시설이 된 것은 메이지시대 말기 이후이며, 1928년 '벳푸 관광의 초석'이 된 아부라야 구마하지 웅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버스가이드가 있는 유람 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하면서 이 곳 간나와지구에 여관·상점이 줄지어 들어서고 많은 관광객과 탕치객으로 붐비게 되었습니다.

일본 유수의 온천 용출량과 원천수를 자랑하는 벳푸 온천

벳푸시는 일본에서도 우수한 지열 지역이며, 증기나 열탕이 자연스럽게 솟아 나오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의 숨결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연현상을 안전하게 감상하고 학습할 수 있게 갖추어 놓은 것이 '지옥 돌아보기'입니다. 매일 시시각각 숨쉬고 있는 “살아 있는 지옥”을 꼭 체험해 보십시오.



벳푸 지옥 조합

우편번호 874-0045 오이타현 벳푸시 간나와 559-1
 Tel.0977-66-1577 FAX.0977-66-7921
<http://www.beppu-jigoku.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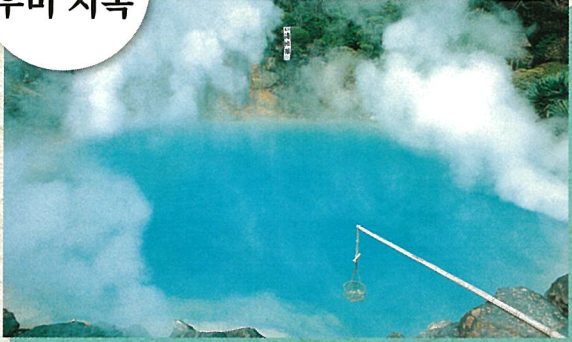
べっぷ 地獄めぐり
 벳푸 지옥 돌아보기

벳푸 지옥
 잘 오셨습니다
 ‘지옥’에.

국가지정명승

우미 지옥

신비롭고 시원한 느낌을 코발트색 연못... 계속 보고 있으면 마치 바다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온도가 섭씨 98도나 되는 연못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에 쓰루미다케 산의 화산 폭발로 인해 형성된 연못입니다. 분고풍토기에 적혀 있는 '구베리노유'에 해당합니다.



오니이시보즈 지옥

햇빛 진흙이 끓어오르면서 크고 작은 구멍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식발한 스님의 머리를 닮은 점과 오니이시라는 지명에서 이름을 따서 오니이시보즈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온천수 온도 99도.



가마도 지옥

옛부터 고장의 조상신을 모시는 가마도하지만 구 신사 대축제 때 지옥의 수증기로 발을 지어 신전에 바치는 풍습에서 가마도 지옥이라는 이름이 유래하였습니다. 맹렬히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와 함께 뜨거운 온천수가 치솟고 있습니다. 온천수 온도 90도.



잘
오
셨
습
니
다
.
지
옥
에

지옥

“지옥” 명칭의 유래

이곳 간나와 가메가와 지옥 일대는 천년 이상의 오랜 옛날부터 뜨거운 수증기·진흙·열탕 등이 분출되고 있었음이 '분고풍토기'에 기록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불길한 토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지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간나와 지방에서는 온천 분출구를 '지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의 한 종류.

특히 '명승'이란 뛰어난 명승지를 의미하며 온천으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미, 지노이케, 다쓰마키, 시라이케 4개의 지옥이 2009년 7월 23일에 고시되었습니다. 오이타현 내에 있는 명승지로서는 1923년에 지정된 아바케이 계곡 다음으로 86년만에 2번째. 4개 지옥의 지정 이유는 '일본의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온천지로서 유명한 벳푸온천 중에서도 독특해서 다양한 색채·형태 하에 응출하는 감상적 가치, 명소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온천의 근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니아마라는 지명에서 유래한 오니아마 지옥, 일명 '악어 지옥'이라는 이름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923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온천열을 이용하여 악어 사육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약 80마리의 악어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온천수 온도 99.1도.

오니아마 지옥



국가지정명승

시라이케 지옥

분출 시에는 무색투명한 열탕이지만, 물이 못으로 떨어지면 온도와 압력이 저하되어 청백색으로 변합니다. 공원 내에는 온천열을 이용하여 각종 대형 열대어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온천수 온도 95도. 봉산 식염천 함유.



국가지정명승

지노이케 지옥



펼쳐 끓어오르는 점토는 수증기마저도 빨간색, 분고풍토기에 '아카유세'라 기록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천연 지옥입니다. 이곳에서 얻은 빨간 점토로 피부병에 잘 듣는 "지노이케 연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온천수 온도 78도.

국가지정명승

다쓰마키 지옥

벳푸시 지정 천연 기념물인 '간헐천'. 간헐천은 일정한 간격으로 열탕과 수증기를 분출합니다. 전 세계의 간헐천 중에서도 멈추어서 뿜어내는 시간 간격이 짧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온천수 온도 105도(수증기).



족탕

입장하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족탕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각각의 온천을 이용한 족탕에서 잠시 느긋하게 휴식.



우미 지옥



가마도 지옥



오니이시보즈 지옥



지노이케 지옥